



보도 일시	2023. 3. 8. (수) 13:30 (행사 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 3. 8. (수) 10:00	
담당 부서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371)
		담당자	사무관	박현수 (044-200-2372)
	규제혁신추진단	책임자	과 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사무관	강선희 (02-3778-3443)
		전문위원	현지훈 (02-3778-3497)	

한덕수 총리,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훈련과정 참관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제 완화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수) 오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20~'24)으로 '98년부터 지난 25년간 대전지역에서 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키워낸 훈련기관*이다.

* 훈련교사 15명, 훈련인원 221명(23.1월 기준), 취업률 95.1%('21년)

○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훈련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카 융합과정, 자동차전기전자 정비 등

□ 한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차관 및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직업훈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직업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 등 참석

-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시장에 맞춰 훈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인구구조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 등은 훈련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였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방문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 교사, 훈련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3월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 직업훈련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현장, 훈련 수요자 간담회(9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관계 부처협의(3회) 및 국무총리 주재회의 등을 거쳐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규제혁신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3개 분야 5개 세부과제)’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산업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훈련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 가능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을 높였다.
 - 향후 고용노동부는 5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세부내용 별첨) >

목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훈련공급과 국민 생애에 걸쳐 원하는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 강화”	
개선	훈련 심사기준 유연화	1 NCS 훈련기준 적용 완화 2 훈련교사의 보수교육 인정범위 확대
	생애 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강화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4 수요자 니즈에 맞춘 직업훈련 범위 확대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5 직업훈련 정보 및 훈련 이력 통합 제공

- 한 총리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 “특히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훈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371)
		담당자	사무관	박현수 (044-200-237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과	책임자	과 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사무관	강선희 (02-3778-3443)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7318)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진호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박득영 (044-202-7272)

- < 참고 > 1.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개요
 2.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 세부 내용

참고 1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개요

□ 개요

- 자동차엔진정비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의 훈련을 실시하여 높은 취업률('21년 95.1%) 성과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에 기여
 -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 훈련과정을 추가하여 미래 모빌리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역할도 수행
- 대전 권역 직업훈련 인프라로 기능 → 비수도권 훈련참여 기회 제고

기관명	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유형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표자	유성식	지정일	2012. 7. 16.
근로자수	15명	매출액	('22년) 20.2억원
인증등급	5년 인증(우수, '20~'25)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 해당없음
훈련분야	자동차(엔진·전기·새시·차체) 정비과정, 전기내선공사과정 등		
취업직종	자동차 정비 및 전기내선공사 관련 업체 등		
협약기업	정비 77개, 전기 30개 등		
소재지	대전 서구 도마로 63, 1~6층		

□ 연혁

- '98년 직업전문학교 인가, '01년 노동부장관 표창, '12년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 '21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16년, '19년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 인증', '20년 '5년 인증' 우수기관

□ 훈련실적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HRD_Net 기준]
2021년	362	307	268	95.10 %
2020년	263	229	198	86.50 %
2019년	195	164	133	85.50 %

2020년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 수상	주요 대외 수상 리스트
		2001년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04년 대전지방노동청장감사패 2016년 우수 훈련기관(3년) 선정 2019년 우수 훈련기관(3년) 선정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감사패 2020년 우수 훈련기관(5년) 선정 2021년. NCS경진대회금상 수상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참고 2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 세부 내용

1 NCS 훈련기준 적용 완화

현행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훈련기준 의무편성 요건으로 인해 산업 및 훈련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설이 제약되고 있음

개선

산업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훈련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 기관의 일반직종 및 사업주 위탁 훈련에 대해서 NCS 훈련기준 자율 편성 허용

2 훈련교사의 보수교육 인정범위 확대

현행

훈련교사의 보수교육 의무화로 미이수 시 훈련과정 개설이 제한되나, 온라인 교육 정원 제한, 오프라인 교육장소 접근성 부족 등 보수교육 이수 불편

개선

타 법령 직무교육 이수에 대한 보수교육 인정 방안 마련, 온·오프라인 보수 교육 확대로 보수교육 편리성 제고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개인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직업훈련 사각지대 발생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고용가능성 제고

- ①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발급기준(소득·매출액 등) 완화
- ② 생계급여 수급자의 발급 요건 완화(근로능력 회복이 가능한 조건부수급유예자 지원)

4 수요자 니즈에 맞춘 직업훈련 과정 범위 확대

현행

신기술 분야, 고속연자 대상 훈련 등 국민의 역량 개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직업훈련 지원 범위가 제한적

개선

직업훈련 과정 범위를 확대하여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① 역량 있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훈련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인력양성 활성화
- ②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등 포괄적 직무 기초역량 과정 확대

5 직업훈련 정보 및 훈련 이력 통합 제공

현행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미흡

개선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여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개인의 훈련 이력 통합 관리